

정책토론회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

2026. 10. 26 (월) 14:00~15:30
한국노총빌딩 6층 대회의실

■ 주최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FKIU RESEARCH CENTER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2026년 10월 26일 (월) 14:00~15:30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시간	세부내용
13:30~14:00	[참석자 등록]
14:00~14:05	[개회 선언·내빈 소개]
14:05~14:10	[인사말] -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
14:10~14:40	[좌장] 곽수환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발제] ·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 대응 - 조연성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 전공 교수)
14:40~15:20	[지정토론] · 송광석 (한국통상정보학회, 생산관리 박사) · 조준영 (다인합동관세컨설팅 대표) · 임선국 (LG Display 노동조합 대의원) · 백국현 (서진산업 노동조합 사무국장)
15:20~15: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5:30	[폐회 및 마무리]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2026. 10.26. (월) 14:00~15:30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목 차 -

■ 인사말

김 준 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

4

■ 발 제 문

·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 대응

7

- 조 연 성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 전공 교수)

■ 지정토론

1. 송 광 석 (한국통상정보학회, 생산관리 박사)

21

2. 조 준 영 (다인합동관세컨설팅 대표)

29

3. 임 선 국 (LG Display 노동조합 대의원)

37

4. 백 국 현 (서진산업 노동조합 사무국장)

39

인 사 말



박홍배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준영입니다.

오늘『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 대응』정책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바쁘신 중에도 어려운 주제에 대한 연구와 발제를 맡아 주신 조연성 교수님과 사회를 맡아 주신 곽수환 교수님, 그리고 지정토론에 참여해 주신 송광석 박사님, 조준영 대표님과 백국현 사무국장님, 임선국 대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변화는 우리 금속산업과 노동현장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업의 인권과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의 책임 범위 또한 자사 사업장을 넘어 자회사와 협력업체, 원재료 조달 과정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노동인권 보호는 기업의 선택적 과제가 아니라 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권·환경 책임은 자기 사업장을 넘어 협력업체와 원재료의 유통경로까지 확장되고 있고, 자동차·철강·조선 등 우리 수출 제조업은 원청과 해외 고객사를 통해 행동규범 준수와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은 엄중합니다. 원청과 해외 고객사의 각종 행동규범 준수 및 실사 요구에 따른 비용과 부담이 적정한 납품단가와 납기 조정 없이 협력업체와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면 공급망 규제의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 대응을 위한 부담이 노동시간과 고용안정, 산업안전보건 등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공급망의 취약한 위치에 놓인 노동자들이 실사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이나 해외 규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급망 규제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거래관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며, 공급망 전반의 노동인권 보호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금속노련 조합원들의 경험과 실태를 바탕으로 공급망 규제가 노동자의 삶과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속노련도 오늘 나온 소중한 제안들이 정책과 단체교섭, 그리고 현장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가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10. 26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 준 영**

발 제 문

조 연 성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 전공 교수)

중간 보고회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2026.10.26

조연성(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전공 교수)
원동환(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전공 교수)

발표 구성과 핵심 질문

핵심 질문

공급망 변화는
어떤 경로로 노동자의
고용·소득·노동조건에
전달되는가?

그리고 노동조합은
어디에서 개입할 수 있는가?

- 1 연구 배경과 조사설계
문헌·통계 검토 · 설문 325명 · FGI 3회
- 2 국제기준과 주요 4개 규제
ILO·UN·OECD / CSDDD·LKSG·FLR·UFLPA
- 3 금속산업 공급망과 노동 쟁점
거래조건 → 기업 대응 → 고용·소득·작업환경
- 4 설문과 FGI의 현장 분석
정보접근 · 비용·책임 · 고용·참여의 실제
- 5 후속 연구와 대응과제
사업장·노조·상급단체·기업·정부의 실행 조건

발표의 중심 제4장 설문조사 + 제5장 FGI 결과를 노동자 관점에서 해석



노동권 보호의 국제기준 — 권리·책임·실사의 연결

ILO는 권리, UN은 국가·기업의 역할, OECD는 실행 절차를 제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구 중간보고회

CHAPTER 02 · 국제기준과 주요 규제

하나의 공통 방향

**공급망 실사는
기업의 위험관리보다
노동자의 피해 예방
과 권리 회복을 기준으로 본다**

해석 원칙

- 국제기준과 국내 법률의 효력을 구분
- 제도·정책의 존재와 현장 개선의 결과를 구분
- 노동자는 정보 제공자이자 권리의 당사자

세 기준의 역할



자료: 중간보고서 제2장 제1절; ILQ(2022), CHC-R(2011), OECD(2018-2023)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중간보고회

04

주요 4개 공급망 규제 — 실사 의무와 제품 통제는 다르다

기업의 관리절차를 보는 제도와 제품의 시장 진입을 통제하는 제도를 구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구 중간보고회

CHAPTER 02 · 국제기준과 주요 규제

기업의 위험관리·실사 의무		제품의 시장 진입·통관 통제	
절차와 조치의 적절성		제품·공급망로의 판단	
EU CSDDD 01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적용 EU 기업 5,000명 초과 + 전 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핵심 자사·자회사·활동사슬의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시정·구제·점검 노동 법정 단계의 협의, 고충·신고, 감독 기관에 우려 제출 구분 실사 이행과 손해배상·피해 회복은 별도 요건 실사 관련 조치: 2029. 7. 26.부터	독일 LkSG 02 공급망실사법 적용 독일 내 법정 거점 + 통상 1,000명 이상 고용 기업 핵심 위험관리·분석, 예방·시정, 고충처리, 기록·보고 범위 자사·직접 공급업체는 정기 분석 노동 기업 고충처리·BAFA 신청·법원의 권리구제 2023 시행 · 1,000명 기준은 2024부터	EU FLR 03 강제노동 결부 제품 금지 규정 적용 EU 시장에 공급하거나 EU에서 수출하는 모든 제품 핵심 강제노동 제품의 출사·유통·수출 금지, 철수·처분 판단 위험정보 → 예비조사 → 정식조사 → 위반 여부 판단 노동 개인·단체의 정보 제출과 조사 협조 제품 금지 집행: 2027. 12. 14.부터	미국 UFLPA 04 위루트 강제노동방지법 적용 신장 지역에서 전부·일부 생산한 물품 또는 지정 기업 관련 물품 핵심 미국 수입금지 추정 적용 실사 적용대상 여부 심사와 법정 예외 심사를 구분 노동 강제노동 제보 포털과 수입업자의 CBP 심사는 별도 통로 수입금지 추정: 2022. 6. 21.부터

노동자 관점의 비교

- 어떤 권리를 보호하는가
- 누가 조사하고 무엇을 판단하는가
- 어떤 참여·제보 통로가 있는가
- 조치가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는가

자료: 중간보고서 제2장 제2절; 법적 기준일 2026.10.14.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중간보고회

05

해외 대응 사례와 국내 적용 과제

평가·감사·신고제도의 존재보다 개선 실행과 노동자 참여의 조건을 확인



자료: 중간보고서 제2장 제3절; 해외 기업 노동조합 사례를 발표용으로 재구성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중간보고회

06

금속산업의 생산단계와 원·하청 거래구조

업종과 생산거점, 국내외 거래관계를 함께 보아야 사업장의 고용·생산 여건을 이해할 수 있다



자료: 중간보고서 제3장 제1절(p.35-43), 표11-13; 그림6 국가데이터저(2025),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2026), 산업통상부(2026).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중간보고회

07

공급망 변화가 노동현장에 전달되는 경로

계약·평가·자료 요구가 거래조건과 기업의 대응을 거쳐 고용·소득·작업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기업 대응과 노동 쟁점

부담과 개선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

공급망 변화	기업의 대응	노동자가 확인할 쟁점
물량·발주 변동	생산계획·교대조·인력 조정	잔업·수당·채용 변동 불량·시간·임금충격을 함께 확인
조달처·거점 재편	구매처·공장별 역할 조정	고용기회·배치전환의 차이 국내외 조달내역과 사업장별 물량
공정·설비 전환	설비·재료·작업방법 변경	재교육·기준 숙련의 활용 훈련시간·소득전환후 배치와 처우
실사·정보관리 확대	자료수집·추적·검증 추가	관리업무 증가·기준 업무와 증첩 담당인력·추가시간·교육 여건
노동·환경기준 개선	안전설비·작업절차 개선	위험 감소와 권리보호의 기회 적용기간·실제 작업환경의 변화
시간과 소득의 연결	자동차·트레일러 월 초과근로 25.2시간 · 초과급여 비중 11.8% 2024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 고용노동부(2025a)	

자료: 중간보고서 제3장 제2절, 그림7·표16·18~20, 해석 원칙: 규제의 영향과 시장수요·관세·원자재 가격·기술변화를 구분.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중간보고회

08

정보·참여의 조건

- 1 결정 전 정보
검토·대안 제시가 가능한 시점
 - 2 사업장 단위
품목·공정별 물량과 인력계획
 - 3 대표성과 이용 여건
노동현장 의견을 제시할 기회
 - 4 답변·후속 확인
의견 처리와 실제 개선 결과
 - 5 비밀·불이익 방지
안전하게 문제를 제기할 조건
- 정보 수령 ≠ 협의·교섭의 완료

설문조사 개요와 응답자 구성

금속노련 산하 사업장 노동자 325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인식·경험과 대응 여건을 살핀다

조사 설계

325 명

조사기간

2026.08.13~10.05

온라인 자기기입식 조사

72문항

기본정보 18 + 척도 54
9개 영역 × 6문항 · 5점 척도

분석 단위 개별 노동자
빈도·비율·평균 및 집단 비교
가중치 미적용

업종별 응답자

설문 업종 분류를 유지

명 / %

자동차·자동차부품	99 / 30.5
철강	32 / 9.8
비철금속·금속소재	81 / 24.9
기계·장비	13 / 4.0
조선·조선기자재	4 / 1.2
전기·전자·전자부품	24 / 7.4
이차전지·배터리	3 / 0.9
금속가공·주조·금형·용접 등	19 / 5.8
기타	50 / 15.4

남성

96.9%

40·50대

71.7%

노동조합 내 역할

응답자의 역할별 구성

일반 조합원	128명 · 39.4%
현장위원·대의원 등	23명 · 7.1%
노동조합 간부	83명 · 25.5%
전임간부	84명 · 25.8%
기타	7명 · 2.2%
간부·전임간부 합계	167명 (51.4%)

근속 10년 이상

74.5%

생산·생산지원 직무

63.1%

비확률표본의 응답자 분포이며, 기업·사업장 비율이나 금속산업 전체의 대표값은 아님

자료: 중간보고서 제4장 제1절(pp.53~56), 표22~25, 조사 기간은 표22 및 연구자 확인 기준, 생산·생산지원 = 생산·조립 + 설비·정비·보전 + 품질·검사.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중간보고회

09

9개 조사영역의 전체 응답 수준

각 영역의 평균은 응답 경향을 요약한 값이며, 무엇에 대한 동의인지 구분하여 읽는다

영역별 평균점수

각 영역 325명 · 1~5점

	1	2	3	4	5	평균
01 공급망 변화 압력			●			3.12
02 공급망 규제 이해			●			3.20
03 정보접근과 투명성			●			2.75
04 비용·책임 전가 인식			●			3.05
05 고용·직무 전환 인식			●			3.29
06 노동권 위험 인식			●			3.37
07 노동자·노동조합의 발언과 참여			●			2.94
08 노조 대응 역량 인식			●			3.14
09 향후 참여의향				●		3.69

응답자별 6개 문항의 동일가중 평균 · 3점은 척도의 중간값
영역 간 점수 차이를 위험의 심각도나 참여 부족량으로 환산하지 않음

자료: 중간보고서 제4장 제1절, 표28-31-34-38(pp.60-63-66-70). 평균은 보조적 기술 통계이며 문항별 응답분포와 함께 해석.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중간보고회

점수가 높다는 의미는 영역마다 다르다

압력·전가·위험 인식

요구 증가·부담·변화 가능성에
대한 동의 수준

정보·참여·노조 역량

정보 제공과 참여 여건,
대응 가능성에 대한 평가

향후 참여의향

앞으로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사
실제 참여율과는 구분

9개 영역을 합친 단일 종합평점으로
노동자나 사업장을 평가하지 않음

10

정보접근과 비용·책임 전가 인식

정보를 얻는 여건과 거래관계에서 느끼는 부담을 각각 확인한다

정보의 충분성과 이해 가능성

16.6%

충분한 정보를 받는다는 동의
54명 / 325명

비동의 36.0%

보통 47.4%

동의 16.6%

15.7%

이해하기 쉬운 설명

16.3%

필요시 노동영향 정보 확인

50.8%

회사가 공급망 요구를 받는지
“잘 모르겠다” 165명

모름 응답을 요구 없음이나 정보 은폐의 증거로 해석하지 않음

공급망 위치별 비용·책임 전가 인식

평균 점수 · 1~5점 · “모름” 29명 제외, 분석 296명

	1	2	3	4	5	평균
원청·완성품			●			2.77
1차 협력업체			●			3.36
2차 협력업체			●			3.54
3차 이하		●				2.33
원재료·소재			●			2.86
여러 단계			●			3.24

전체 집단 분포 차이 | Holm 보정 $p = 0.00036$

3차 이하 1명은 집단의 대표값이 아님. 특정 두 집단의 차이와
협력업체 자수에 따른 증가 추세를 별도로 검증하지 않음.

확인 과제 사업장에 들어오는 요구와 실제 비용·인력·시간의 부담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자료: 중간보고서 제4장 표25-29-57-60(pp.56-61-86-88). 정보 문항은 각 325명, 동의는 4~5점 합계. 비용전가 인식은 실제 비용분담률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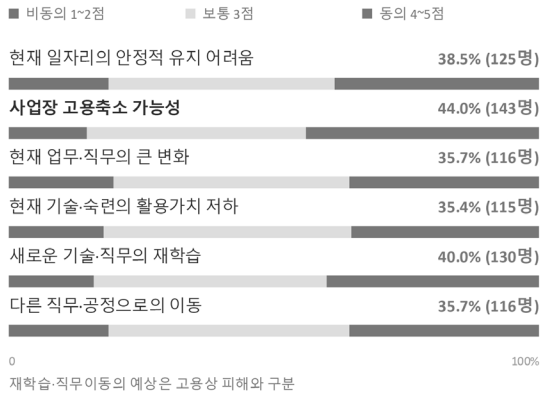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중간보고회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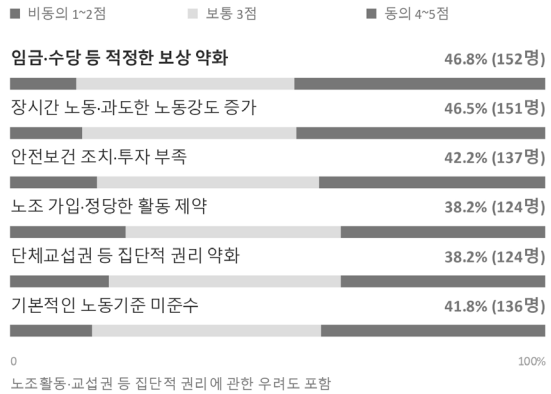
고용·소득·노동권 위험에 대한 인식

고용 유지뿐 아니라 소득·작업부담·직무 적응에 관한 우려를 함께 살핀다

고용·직무 전환 가능성



노동권 위험



해석 기준 각 문항 325명 · 동의는 4~5점 합계 · 실제 해고·임금삭감·산재 발생률이 아님

자료: 중간보고서 제4장 표32-33(pp.64-65). 막대는 1~2점·3점·4~5점의 인원 비중(325명 기준). 문항 표현은 축약. 고용·노동권 위험은 가능성에 대한 인식.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중간보고회

12

현재의 참여 여건과 향후 참여의향

참여 통로의 평가, 노조의 대응 가능성, 앞으로의 활동 의사를 구분한다

현재의 발언·참여

2.94 영역 평균
1~5점



대표 문항의 동의 비율 · 각 325명
현재 참여 여건에 대한 평가

노조 대응 역량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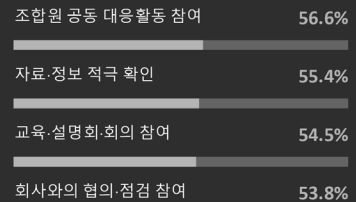
3.14 영역 평균
1~5점



대표 문항의 동의 비율 · 각 325명
실제 교섭 성과·지원 실적과 구분

향후 참여의향

3.69 영역 평균
1~5점



대표 문항의 동의 비율 · 각 325명
실제 활동 참여율과 구분

실행 여건 참여 의향을 실제 활동으로 연결할 정보·검토시간·교육·의견 회신을 함께 마련한다

자료: 중간보고서 제4장 표35-38(pp.67-70) 및 시사점(pp.98-100). 동의 = 4~5점 합계. 중간응답을 통로 부재로, 영역 간 차이를 참여 부족함으로 해석하지 않음.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중간보고회

13

집단별 차이와 설문조사의 시사점

보정 후 확인한 분포 차이를 토대로 지원 대상을 살피되, 특정 집단의 피해나 인과관계를 단정하지 않는다

보정 후 차이를 확인한 비교

영역 점수의 전체 집단 비교 · 99,999회 순열검정 · Holm 보정

비교 기준	차이를 확인한 영역	인원	보정 p
업종	비용·책임 전가 인식	325	0.0212
공급망 위치	비용·책임 전가 인식	296	0.00036
요구 경험	공급망 변화 압력	160	0.0022
노조 역할	공급망 규제 이해	325	0.00396
노조 역할	향후 참여의향	325	0.00024

차이를 확인하지 못한 비교

사업장·기업 규모, 기업집단, 해외 연계, 거래방식, 고객 의존도, 하위업체 요구 전달 등에서는 보정 후 유의한 영역 차이를 확인하지 못함

전체 분포 차이 ≠ 특정 두 집단 차이 · 차이 미확인 ≠ 집단의 동등성 입증

자료: 중간보고서 제4장 제2절, 표 39-47-51~53-60-64~65-70 및 시사점(pp.97~100). 비확률표본·소수 집단·동일 사업장 응답 유사성의 한계를 고려.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중간보고회

14

설문에서 도출한 대응 과제

- 1 정보를 업무와 연결**
요구·일정·인력 변화의 사전 설명
- 2 비용과 업무를 함께 점검**
추가업무·인력·시간·지원 배분
- 3 고용과 생활을 함께 보호**
소득 배차·교육·적응 여건 검토
- 4 의견제시 이후까지 확인**
회신·후속조치·실제 개선 점검
- 5 단위노조와 공동지원 연결**
현장 의견 + 금속노련 교육·전문상담

FGI 조사 개요와 분석 범위

설문에 나타난 인식의 배경을 살피고, 공급망 변화가 현장에서 진행되는 과정과 대응 여건을 비교한다

집단면접조사

3회 4개
면접 진행 대상 기업

20명
조사기록상 참석인원 함께

약 280분
전체 대화 기록

반구조화 질문 · 추가 질문
기업명·참석자 신원 비공개

조사 일정

2026년 · 기업별 참석인원 5명

회차	조사일	대상 기업	참석인원	대화 시간
1	8월 19일	1개	5명	약 90분
2	8월 31일	2개	10명	약 96분
3	9월 1일	1개	5명	약 94분

공통 질문 7개

- 01 공급망 변화의 체감
- 02 공급망 변화의 전달 방식
- 03 비용과 위험의 배분
- 04 고용·직무·노동조건의 영향
- 05 정보공개와 노동자·노동조합의 참여
- 06 노동조합의 대응과 한계
- 07 향후 대응방안과 정책과제

분석의 기준

- 경험과 전망 구분**
직접 경험·전해 들은 내용도 구분
- 공통점과 차이 비교**
주제별 분석과 사례 간 비교 병행
- 확인 범위 유지**
진행자 설명을 참여자 경험으로 보지 않음

설문과 동일인을 추적한 자료가 아님 · 사례를 전체 산업의 발생률로 일반화하지 않음

자료: 중간보고서 제5장 제1절 가)(pp.101~102), 표 74. 참석인원은 조사기록의 합계, 시간은 전체 대화 기록 기준.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중간보고회

15

공급망 변화의 현장 전달경로

참여자들은 공급망 변화를 재료·자료·생산수량·납품 일정·작업방법의 변경으로 경험했다

외부 변화가 현장의 기준과 계획으로 바뀌는 과정

면접 경험의 주제별 요약

변화 유형	출발점	사내 전달	현장 경험
1 기준·사양 변경	품질·환경·안전 기준 재료·검증자료·관리항목	관련 부서 검토 → 지침·도면 반영 하위 납품업체에도 변경사항 전달	작업방법 안내·자료 제출 현장 점검으로 구체화
2 생산·납품계획 조정	생산수량·출하시점 납품 일정의 변경	고객 계획 → 물류·생산부서 현장 작업과 부품 조달 일정 조정	정기계획에 따른 준비 수시 변경에 대한 조정
3 수요·제품 구성 변화	주문 증가·감소 제품별 수요·생산 내용	거래물량·제품 요구 → 생산계획 재료와 작업 준비 내용을 변경	추가 물량 준비·기존 계획 조정 새로운 제품의 생산 준비
4 원자재·부품 조달 변동	자재 가격 변동 공급 지연·확보 어려움	일정 협의 또는 기술 검토 대체 재료는 검토·시험 후 적용	납품 시점 재협의·대체 재료 검토 조달처 확대

원인 해석의 기준

법령과의 연결을 확인하지 못한 요구는 고객사의 거래·관리기준으로 설명

규제·고객 방침·시장수요·조달여건을 구분하며, 기존 납품 방식 자체를 최근 규제의 결과로 보지 않음

자료: 중간보고서 제5장 제1절 나(pp.102~103), 표75. 도식은 보고서의 경험 유형을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법령의 인과효과를 뜻하지 않음.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중간보고회

16

비용·고용·노동조건의 변화

부담을 호소한 경험과 고용 유지·기술지원·안전관리의 변화가 함께 나타났으며, 사례별 조건을 구분한다

01 투자비 회수와 부담 배분

부담 경험 설비를 먼저 마련한 뒤 제품 대금으로 장기 회수
주문·납품가격 변경으로 회수에 어려움

다른 경험 기술공유·투자지원 인식,
회사 손실에 따른 직접 임금삭감은 없다는 설명도 존재

비용 증가와 노동자가 최종 부담하는 몫을 구분

02 고용 유지와 직무·숙련 변화

업무 변화 기존 인원을 유지하면서 검사·포장 등으로 이동
여러 공정을 익혀 필요한 곳에 배치

교육 여건 동료 전수·자체·외부교육 경험이 있지만,
담당 업무와 교육시간이 실제 참여를 제약

고용 유지와 새 업무의 적응·처우를 함께 확인

03 물량·근무시간과 실제 소득

소득 경험 산업·특근 감소와 예정 특근 취소로 수입 변동
가동이 적은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받은 사례

근무형태 주문 확대에 따른 야간작업 경험과
추가 교대제 확대 논의·반대가 함께 나타남

근로시간 감소의 휴식 효과와 소득 영향을 구분

04 공정 속도·작업부담과 안전

부담 경험 자동설비와 후속 수작업의 속도 차이 → 적체·피로
축박한 납기에 따른 자체 준비·작업 부담

보호 변화 연속근무 제한·대피절차 구체화,
위험작업을 장비가 수행한다는 경험

관리 절차의 변화를 재해 감소 효과로 보지 않음

자료: 중간보고서 제5장 제1절 다(가·마) 및 제2절 나(pp.104~111), 표76~78-80. 화면 문구는 면접 경험의 요약이며 직접 인용문이 아님.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중간보고회

17

정보공유·노조 대응과 조사결과의 종합

협회의 존재와 실제 참여·보호의 결과를 구분하고, 설문과 FGI가 보여준 공통점과 차이를 연결한다

설문의 경향과 FGI 경험을 함께 읽기

분석 쟁점	설문의 경향	FGI 경험과 종합 해석
비용·책임	공급망 위치별 전가 인식의 분포 차이	비용 회수의 어려움과 직접 임금삭감을 부인한 경험 공존 회사 대응·노사협의의 조건을 함께 검토
고용·생활	고용 축소 우려 44.0% 보상악화 우려 46.8%	고용 유지·업무 이동·잔업 축소, 가동 감소 중 임금 지급 경험 인원과 소득·업무 적응 여건을 함께 확인
의견 통로·참여	공식 통로 긍정 21.2% 중립 응답 46.8%	정례협의 경험과 결정 후 전달, 일부 거래정보 접근 제약이 병존 논의 내용·시점·의견 반영을 구분
참여·대응 조건	역할 별 평균(5점 척도) 참여의향 3.40~4.08점 정보접근 2.65~2.95점	교육 참여의 시간·업무 제약, 주문 변경에 따른 협의 전제 변화 정보·시간·실제 협의 범위를 함께 검토

동일인을 추적한 자료가 아님 · 중립을 ‘통로 없음’으로 바꾸지 않음
위험 인식은 피해 발생률과 구분 · 영역 간 점수 차이를 참여 부족량으로 환산하지 않음

자료: 중간보고서 제5장 제2절(pp.109~116), 표79~82, 제4장 표69~71~73. 설문 수치는 인식·평가이며 실제 피해 참여 성과와 구분.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중간보고회

18

노조 대응과 참여자의 요구

확인한 대응·요구

배치·인력 운영안 검토
임금·작업부담 협의와 복귀 교섭
참여자의 교육 확대 요청

현장의 제약

거래·투자정보의 접근과 제공 시점
고객 조건 변경의 어려움
주문 변동·교육시간 부족

후속 확인 과제

정보·교육과 사업장 설명의 연결
비용·인력·시간 지원의 도달 여부
고용·소득·작업 변화의 사전 점검
문제 제기 이후 회신·개선 확인

연구진 제안 · 확인한 이행 성과와 구분

최종보고서까지 보완할 연구 과제

문헌·제도·설문·FGI를 연결하고, 확인 가능한 근거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대응과제를 구체화한다

후속 연구의 진행 순서

01 분석결과 통합

변화 원인·전달경로 정리
설문 경향과 FGI 조건 대조

02 쟁점 보완 확인

업무·비용·교육·후속조치 확인
확보 가능한 문서·관계자 확인

03 대응방안 구체화

주체별 역할과 실행 조건 정리
필요한 자원·확인 방법 제시

04 현장 의견 반영

보고회 의견·이전의 근거 정리
적용 조건과 남은 쟁점 명시

보완 확인할 네 가지 연결관계

연결관계	다시 확인할 사항
공급망 요구 → 현장 업무	요구 내용과 실제 작업 변경의 연결
대응비용 → 노동조건	기업의 비용 부담과 노동조건 조정의 관계
직무 이동·교육 → 적응	교육 대상·참여시간·업무조정과 새 직무 적응
노동자 의견 → 후속조치	협의 실시와 의견 반영, 회사의 후속 조치를 구분

해석의 경계 | 실제 경험과 향후 우려를 구분 · 소수 집단·‘모름’ 응답 점검 ·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한계로 명시

자료: 중간보고서 제6장 제1절(pp.117~118), 후속 연구의 진행 방향이며, 확정된 실행 성과와 구분한다.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중간보고회

19

보고회에서 받을 의견

현장과의 부합

조합원의 일·생활에서 우선할 문제인가

실행 가능성

제안한 절차를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가

지원의 사각지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노동자는 없는가

주체별 대응 방향과 연구결과의 활용

실행 주체와 자원을 연결하고, 노동자·노조가 활용할 판단 근거와 점검 기준을 마련한다

주체별로 구체화할 대응 방향

주체·수준	주요 검토 과제
사업장·회사	정보 제공과 사전협의 인력·직무 변화의 조정 절차
단위노조·금속노련	전문정보 해석·교육·상담 사업장 경험 공유와 협의·교섭 지원
원청·협력업체	요구 이행에 필요한 자원과 분담 조건 협력업체·노동자에게 지원이 도달하는지 검토
공적 지원기관	필요한 자원·전문지원의 연계 소규모 사업장·노동자의 이용 조건 점검

기존 협의·교육에서 시작할 과제와
추가 자원·제도 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구분

기대 효과와 활용 기준

- 01 노동자의 판단 근거**
변화의 배경·영향을 이해하고
회사·노조에 확인할 질문을 정리
- 02 노조의 협의·교섭 의제**
비용분담·배치·교육·소득·작업부담
논의와 조합원 설명의 근거를 보완
- 03 상급단체의 공동지원**
공통 정보와 개별 과제를 나누어
교육·상담의 대상·우선순위를 판단
- 04 노동자 관점의 점검 기준**
지원 실시를 넘어 실제 이용과
내용 이해·의견 제시·답변 여부를 확인

대응안에 담을 항목	담당 주체	지원 대상	시작 절차	인력·시간·비용	이행 확인 방법
------------	-------	-------	-------	----------	----------

자료: 중간보고서 제6장 제1·2절(pp.117~119). 기대 효과의 실현은 관계 주체의 협의·자율 확보·이행에 따라 달라진다.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중간보고회

20

감사합니다.

토론문 1

송 광 석

(한국통상정보학회 생산관리·SCM 박사)

토론문 1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송광석(한국통상정보학회 생산관리·SCM 박사)

1. 노동자 관점에서 공급망을 분석한 연구의 의의

이 연구의 의의는 기업의 공급망 규제 대응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서로 다른 평가 대상으로 설정한 데 있다. 기업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까지 개선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대응비용의 부담, 고용과 소득의 변화, 정보접근과 참여 여건을 함께 살핀다. 이는 공급망 대응의 성과를 기업의 관리체계나 수출 실적에 한정하지 않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경험을 통해 평가하려는 접근이다. 노동자 관점을 연구에 반영한다는 의미도 특정한 결론을 미리 선택하는 데 있지 않고, 기업 차원의 성과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학술적으로는 노동조건을 설명하는 범위를 개별 사업장의 내부 사정에서 기업 간 거래관계로 넓힌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보고서는 원청과 고객사가 정하는 요구사항,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대응업무,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를 구분한다. 노동기준을 지키라는 요구가 있어도 납품가격과 준비기간, 필요한 인력과 지원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현장의 이행 여건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관점은 협력업체의 관리능력만을 평가하는 대신, 기준을 요구하는 기업의 구매관행도 검토하게 한다. 동시에 거래관계의 제약을 이유로 소속 기업의 책임을 지우기보다, 각 기업의 결정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출발점을 제공한다.

노동영향을 고용인원의 증감보다 넓게 파악한 점도 의미가 있다. 면접 참여자들은 기존 인원을 유지하면서 담당 업무를 바꾼 경험과, 잔업·특근 감소로 실제 수입이 줄어든 경험을 설명했다. 자동화에 대해서도 작업 수행을 돕는다는 평가와 후속 수작업의 부담이 커졌다는 경험을 함께 제시했다. 이처럼 고용 유지, 소득 안정, 업무 적응과 작업부담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보고서가 이들을 구분한 점은 노동자의 생활을 인원 감축 여부 하나로 판단하지 않도록 한다. 공급망 변화에 따른 노동의 문제를 일자리의 수뿐 아니라, 그 일을 어떤 조건에서 지속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확장한 것이다.

국제기준과 제도 검토에 설문과 집단면접을 연결한 구성도 연구의 활용 가능성을 높인다. 보고서는 제도가 제시하는 보호 원칙을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노동자가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하는지 조사했다. 설문으로 인식의 분포를 살피고 면접으로 그 배경을 검토하면서, 서로 다른 사업장의 경험을 하나의 결과로 단순화하지 않으려 했다. 이러한 구성은 국제규범의 언어와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량·임금·배치·교육의 언어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이번 연구의 기여를 특정 규제의 노동조건 개선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질문과 확인할 조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 한국노총과 금속노련이 조사결과를 협의·교섭과 공동지원의 논의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러한 진단적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2. 규제·거래구조·노동조건을 연결하는 설명의 타당성

제3장의 [그림 7]은 규제 요구가 기업 간 거래를 거쳐 전달되는 과정에서 납품가격, 준비기간, 비용분담과 지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시한다. 이 분석틀에서 검토할 대상은 요구사항의 전달 여부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그 요구를 이행할 조건을 어떻게 정하는가이다. 같은 기준을 요구하더라도 구매기업이 개선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경우와 공급업체가 기존 자원만으로 대응하는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건에 따라 현장 개선과 비용절감 압력이라는 서로 다른 방향을 설명한다. 다만 이 도식은 사례를 해석하는 틀이며,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한 경로가 작동한다는 실증 결과는 아니다. 후속 분석에서는 각 사례가 이 경로의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해 제시하는 편이 적절하다.

설명 of 정확성을 위해서는 공급망 규제와 공급망 변화의 범위를 일관되게 구분해야 한다. 보고서는 생산과 공정의 변화에 관세, 시장수요, 원자재 가격과 자동화 등이 함께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면접 분석에서도 특정 법령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요구는 고객사의 거래·관리기준으로 다룬다. 이 구분을 유지하면서 제도 설명과 현장 사례를 연결할 필요가 있다. 법적 의무의 이행, 향후 적용에 대한 준비, 고객사의 자율적 기준과 일반적인 생산조정은 서로 다른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할 때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요구의 내용과 전달 시점, 회사가 제시한 이유와 실제 조치를 함께 정리할 수 있다. 출발점을 확인하지 못한 사례는 공급망 변화의 경험으로 남겨 두는 것이 규제의 영향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방법이다.

비용과 노동조건 of 관계에서는 기업 사이의 부담 배분과 기업 내부의 노동조건 조정을 두 단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면접에는 공급업체가 설비투자비를 먼저 지출하고 제품 대금을 통해 장기간 회수하지만, 주문과 가격이 바뀌면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설명이 있다. 다른 대목에서는 회사가 투자비 증가를 임금·복지 지출 억제 of 이유로 제시했다는 경험과, 회사 손실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삭감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함께 나온다.

이 자료들은 비용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같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서로 다른 참여자의 발언을 이어 붙여 하나의 완결된 비용전가 사례로 만들 수는 없다. 사례별로 기업이 부담한 비용, 회사가 선택한 대응, 노동자가 경험한 결과를 구분해야 실제로 확인한 연결과 아직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보완은 노동조건의 변화를 외부 압력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설명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보고서는 기업의 비용 증가와 노동자의 최종 부담 사이에 회사의 선택과 노사협약이 존재한다고 해석한다. 토론의 관점에서도 이 중간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객사의 요구 가운데 무엇을 조정하기 어려웠는지, 소속 기업은 어떤 대응방식을 선택했는지, 다른 방식의 비용분담이나 업무 조정을 검토했는지가 분석 대상이다. 이는 기업의 제약을 부정하는 접근이 아니라, 제약의 존재와 특정한 노동조건 조정의 필요성을 구분하는 접근이다. 이 관계를 분명히 할수록 노동조합도 어느 기업의 어떤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무엇을 협의해야 하는지 판단할 근거를 얻을 수 있다.

3. 설문과 FGI 결과의 해석 범위

이번 설문은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의 인식을 진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되, 표본의 구성과 분석 단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응답자는 325명이며, 노동조합 간부와 전 임간부가 전체의 51.4%를 차지한다. 이러한 구성에서는 전체 평균과 함께 일반 조합원과 간부의 응답을 나누어 읽을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 단위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니라 개별 노동자다. 보고서도 비확률표본이라는 점과 동일 사업장 소속 응답자의 유사성을 조정할 식별정보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 따라서 조사결과를 금속산업 전체의 실태나 사업장별 제도 운영 비율로 확대하기보다, 참여자들이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편이 적절하다.

문항이 측정한 내용도 결과의 표현과 일치해야 한다. 규제 이해는 객관적인 지식 시험이 아니라 자기평가이며, 고용·노동권 위협에 대한 동의는 실제 피해 발생과 다르다. 이러한 구분은 인식조사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조사결과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분명히 하는 기준이다. 특히 공급망 관련 요구 경험에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이 165명으로 50.8%를 차지하며, 해당 집단 비교는 이들을 제외한 16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 비교는 전체 응답자의 상황을 모두 설명하지 않는다. ‘모름’을 요구의 부재나 노동자의 무관심으로 간주해서도 안 된다. 후속 검토에서는 이들이 어떤 정보를 접했고 질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이유를 확인하기 전에는 회사의 정보 은폐나 교육 부족 가운데 하나로 원인을 확정하지 않아야 한다.

집단별 비교에서는 보고서가 적용한 다중검정 보정과 효과크기를 결과 해석에도 일관되게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급망 위치별 비용·책임 전가 인식의 차이는 Holm 보정

이후에도 유의하다. 그러나 이는 여러 위치 집단의 전체적인 분포 차이를 확인한 결과이지, 원청과 각 협력업체 사이의 차이를 모두 입증하거나 협력업체 차수가 높아질수록 부담이 증가한다는 추세를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반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차이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우려나 지원 필요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와 각 집단에서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는지는 다른 질문이다. 대응과제를 정할 때에는 유의성 여부만으로 대상을 선별하기보다 응답분포, 차이의 크기와 현장 경험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FGI는 설문지의 비율을 다시 입증하기보다, 비슷한 응답이 서로 다른 경험에서 나올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로 읽을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3회에 걸쳐 4개 기업의 참석인원 합계 20명을 조사했으며, 설문과 면접의 동일 응답자를 연결한 추적자료를 구성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두 자료에서 유사한 내용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를 확정하지 않고, 서로 다른 경험도 비교에 남겨야 한다. 보고서가 이미 제시한 종합표를 활용하면서 설문이 보여준 경향, 면접이 설명한 조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면 이러한 해석을 더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다. 조사결과와 활용 가치는 모든 사업장에 같은 결론을 적용하는데 있지 않다. 노동자가 제기한 우려 가운데 무엇을 현재의 근거로 설명할 수 있고,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화하는 데 있다.

4. 노동자의 정보접근·참여권과 노동조합의 역할

노동자의 정보접근을 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 문제로만 다루어서는 충분하지 않다. 보고서의 면접에서는 작업기준의 변경을 알고 있어도 수주와 투자계획의 세부 내용에는 접근하기 어렵다는 경험을 제시했다. 고객사와 회사가 내용을 결정한 뒤 노동조합에 알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자가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이해하더라도, 그 작업을 어떤 인력과 조건으로 운영할지 논의할 기회는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 제공의 목적을 회사 방침의 전달에 두기보다, 노동자가 자신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둘 필요가 있다. 이 관점에서 사전 설명의 기준도 작업을 시작하기 전인지에 그치지 않고, 노사가 아직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남아 있는지를 포함해야 한다.

실사 참여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 자격과 독립적인 판단을 구분하여 살펴야 한다. 보고서는 실사 관련 부서에서 조합원이 근무한다는 사실과 노동조합이 대표 조직으로서 점검·개선에 참여하는 일을 구별한다. 면접만으로는 후자의 절차와 권한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구분을 대응방안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의 역할은 회사가 정한 점검항목에 답하거나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데 한정하지 않고, 조합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할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조치의 적절성을 따지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기업의 실사

책임을 노조에 대신 맡기는 방식과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 노조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제안은 경영결정의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불리한 노동조건 변경에 동의하자는 제안이 아니다. 보고서가 제시한 이러한 원칙을 참여방안의 전제로 명시하는 편이 적절하다.

정보접근을 확대하는 방안은 필요한 정보와 보호할 정보를 나누어 구체화해야 한다. 보고서는 영업비밀과 개인정보의 보호 범위를 고려하면서 집계·비식별화, 접근대상 제한 등의 제공방식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거래정보 전체의 공개 여부만을 논의하기보다, 고용과 작업조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어떤 형태로 전달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의 세부 가격을 공개하는 문제와 주문 변경에 따른 예상 업무량·인력계획을 설명하는 문제는 구분할 수 있다. 자료를 전달할 때에는 노조가 내용을 검토하고 질문할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은 모든 정보에 대한 무제한 열람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사정을 이유로 노동영향에 관한 설명까지 생략하지 않도록 제공범위와 방식을 협의하자는 취지다.

참여의 평가에서는 고충처리, 노사협의를 단체교섭의 기능을 구분해야 한다. 보고서는 정보를 설명받은 사실과 노동조건에 관해 교섭·합의한 사실을 나누며, 고충처리 역시 노동조합의 역할이나 다른 구제수단을 약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토론의 관점에서도 회사가 신고창구를 운영하거나 의견을 청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적인 노동조건 문제까지 처리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노동조합은 개별노동자의 경험을 모아 공통 의제를 구성하고, 회사의 설명과 조치에 이견이 있을 때 이를 계속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의견의 수용을 참여의 성과로 요구할 수는 없지만, 회사가 무엇을 검토했고 어떤 이유로 수용하거나 거절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독립적인 문제제기와 후속 확인의 가능성을 노동조합 참여의 평가 기준으로 더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5. 최종 결과보고의 보완 방향과 정책 제안의 근거

이후 연구에서는 논점을 추가하기보다 조사결과와 대응방안 사이의 근거를 정리하는 작업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제6장은 분석결과와 통합과 보완 확인을 거쳐 주체별 대응과제를 구체화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발전시키려면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문제, 국제기준이 제시하는 보호 방향, 연구진이 제안하는 실행방식을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 참여의 어려움을 확인했다면 지원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특정 교육사업의 효과까지 입증했다고 볼 수는 없다. 정책 제안에는 어떤 문제를 줄이려는지와 해당 방식이 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편이 적절하다. 이렇게 근거를 구분하면 조사에서 확인하지 않은 효과를 약속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다.

보완 확인은 현재 자료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노동자의 경험과 지원의 적용 조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3차 이하 협력업체 소속 응답자는 한명이므로, 이들의 상황을 조사결과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소규모·하위 협력업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할 때에는 이들이 어떤 요구를 받고 어떤 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남은 연구기간에 대규모 조사를 새로 진행하는 방식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의 동의와 신원 보호를 바탕으로 확보 가능한 요구 문서, 교육 운영자료와 협의 기록을 기존 면접내용과 대조하는 보완을 검토할 수 있다. 자료 확보가 어려운 부분은 제안의 적용 조건으로 남겨 두고, 지원 대상의 상황을 확인한 것처럼 서술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제6장이 제시한 문서·관계자 확인 중심의 보완 방향과도 연결된다.

해외 사례를 활용할 때에는 운영방식의 소개에서 국내 적용 조건의 비교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노사 공동조사, 감독기관에 대한 신청, 법원을 통한 실사계획 보완처럼 서로 다른 참여 경로를 제시하고, 문제제기 이후의 조사 참여와 결과 확인에서도 차이를 설명한다.

또한, 최종 연구 결과에서는 각 사례를 가능하게 한 협약과 제도, 노동조합 간 협력, 전문적인 지원을 국내 여건과 대조할 수 있다. 해외에서 특정 절차를 운영한다는 사실보다 국내 노동조합이 그 방식을 활용하려면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가 제안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기존 협의체계에서 검토할 과제와 추가적인 재원이나 제도 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나누면, 해외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용 가능성과 남은 제약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최종 대응안에는 실행 주체와 점검 기준을 함께 담아야 한다. 보고서도 담당 주체, 지원 대상, 필요한 인력·시간·비용과 이행 확인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힌다. 이때 단위노조가 수행할 활동과 원청·협력업체·금속노련·공적 기관이 맡을 과제를 구분하고, 각 주체의 역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과제의 우선순위는 시행하기 쉬운지뿐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지원의 시급성을 함께 고려하여 정하는 편이 적절하다. 성과를 확인할 때에도 사업을 실시했다는 기록과 노동자가 실제로 이용한 결과를 나누어 살펴야 한다. 보고서가 제안한 교육 참여시간과 업무 활용 여건 등의 기준을 활용하면 지원 이후 무엇을 확인할지 구체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정리는 한국노총과 금속노련이 연구결과를 공통 의제로 발전시키고, 대응의 이행과 보완을 요구할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토론문 2

조 준 영

(다인합동관세컨설팅 대표이사 물류학 박사)

토론문 2

공급망 대응을 현장의 노동자 보호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 조건

조준영(다인합동관세컨설팅 대표이사 물류학 박사)

첫째. 공급망 운영 관점에서 본 연구의 활용 가치

물류·공급망 컨설팅의 관점에서 이 보고서는 고객사의 요구를 현장 업무로 옮기는 과정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제5장은 고객의 기준 변경을 작업지침과 점검항목에 반영하는 과정, 생산계획에 맞추어 출하와 부품 조달을 준비하는 과정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은 공급망 대응을 검토할 때 질문의 범위를 넓혀 준다. 요구사항을 전달했는지에 더해 어떤 업무가 달라지는지, 담당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기존 인력과 일정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는 규제 대응계획과 생산·조달계획을 따로 검토하지 않고, 두 계획이 현장의 작업에서 어떻게 만나는지 살펴보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노동자의 설명을 통해 공정 운영에서 놓치기 쉬운 문제를 찾을 수 있다는 점도 활용 가치가 있다. 면접에는 자동화 설비가 생산한 물량을 후속 수작업이 따라가지 못해 작업물이 쌓이고, 노동자가 계속 일하면서도 처리 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경험이 나온다. 같은 참여자는 설비 도입 초기보다 운영 전반은 안정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사례를 현장 진단에 활용한다면 운영의 안정 여부와 특정 공정의 작업부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는 설명만으로 후속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노동자의 처리 속도만 평가하기보다 공정 사이의 물량과 작업능력이 맞는지 살펴볼 질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장 경험은 운영계획을 검토하는 자료가 된다.

보고서는 회사의 계획과 노동자의 경험을 같은 안건으로 논의하는 데에도 참고할 수 있다. 면접에서 노동조합은 회사의 인력 배치안을 현장의 필요와 대조하고, 공정 이동에 따른 임금과 작업부담을 함께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사가 인력과 근무계획을 미리 논의해도 이후 주문이 달라지면 운영방안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공급망 대응을 논의하면 회사의 계획 설명과 노동자의 우려를 별개의 이야기로 남겨 두지 않을 수 있다. 계획이 전제한 물량, 현장에서 수행할 업무, 이후 달라진 조건을 함께 확인하면서 어떤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지 좁혀 갈 수 있다. 컨설팅에서도

회사의 요구를 현장에 설명하는 데 머무르기보다, 현장의 경험을 계획 검토에 반영할 질문을 정리하는데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를 개별 기업의 운영진단 결과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 보고서는 기업의 관리 실적이나 법규 준수 여부가 아니라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의 인식과 경험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설문점수만으로 특정 기업의 인력 부족이나 운영상의 결함을 확정할 수는 없다. 실제 사업장에 적용할 때에는 보고서가 제시한 쟁점을 해당 현장의 생산계획, 근무 기록과 업무분장 등에 비추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실무적 가치는 모든 사업장에 같은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데 있지 않다. 공급망 대응 과정에서 어떤 업무를 누가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의 어려움을 어디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묻는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이를 활용하는 목적도 납품과 자료제출을 마치는 데 한정하지 않고, 노동자가 감당하는 업무와 작업 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데 두어야 한다.

둘째. 고객사의 요구와 협력업체의 대응 여건 사이의 차이

고객사가 정한 제출기한을 기준으로 협력업체의 대응능력을 평가하기 전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보고서는 대응비용을 서류 작성과 인증 비용에 한정하지 않고 담당인력 배치, 부서 간 정보 연결, 추적체계 구축과 공정 개선까지 포함하여 설명한다. 실무 검토에서는 고객사의 요청을 기존 자료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와 새로운 기록·측정·설비가 필요한 업무로 나누어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이미 보유한 기록을 제출하는 일과 현장에서 정보를 새로 생산하는 일은 준비 과정이 다르다. 필요한 작업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제출 여부만 평가하면, 어떤 지원을 제공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표 16>에서 제시한 준비기간, 기존 자료의 인정, 검증비 부담과 개선기간을 개별 요청에 대응시켜 검토하는 방식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하위 거래처의 자료까지 확보해야 하는 요구에서는 협력업체 내부의 업무능력만으로 대응 여건을 판단하기 어렵다. 면접에는 상위 거래처의 기준을 이행하면서 하위 거래처에서도 같은 기준을 지키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 나온다. 이러한 업무를 구체화할 때에는 해당 업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다른 업체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정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원재료의 출처나 생산경로에 관한 요청은 어느 단계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증빙으로 사용할지부터 명확하게 정하는 편이 적절하다. 확보하지 못한 정보는 확인 범위와 추가 조치 계획을 함께 기록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현장의 위험을 무시하자는 뜻이 아니라,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담당자가 임의로 채우지 않도록 요청기업과 수행기업의 역할을 정하자는 제안이다.

여러 고객사의 유사한 요청에는 중복 업무를 줄이는 조정도 필요하다. 보고서가 소개한 BMW 사례는 공통 행동강령을 인정하여 반복 대응의 부담을 줄이려는 접근을 보여준다.

다만 보고서는 이를 모든 감사결과의 자동 인정이나 실사 면제로 해석하지 않는다. 국내 적용에서도 고객사마다 다른 양식부터 통일하기보다,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와 기준기간이 실제로 같은지 대조하는 작업을 먼저 검토할 수 있다. 같은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재활용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도록 협의하는 방식이다. 이때 줄여야 할 대상은 반복 입력과 불필요한 재작성이지, 노동환경의 위험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다. 공통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사업장별 문제와 노동자의 경험을 확인할 기회는 유지해야 한다.

지원의 적절성은 제공 여부보다 부족한 자원을 얼마나 보완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면접에서는 기술공유나 투자지원이 있다는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분담 내역은 알지 못한다는 답변도 나왔다. 지원방안을 검토할 때에는 교육이나 시스템의 제공과 별도로, 실제 담당자가 사용할 시간과 업무조정 여건을 확인해야 한다. 새로운 기록업무를 맡긴다면 누가 수행하고 기존 업무를 어떻게 조정할지, 현장점검을 준비한다면 어떤 부서가 자료를 확인할지까지 정하는 편이 적절하다. 외부 컨설팅도 제출 문서를 완성하는 데서 끝내기보다 담당자가 이후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다. 협력업체의 대응역량을 높인다는 목표를 기존 노동자가 추가 업무를 감당하는 방식으로만 달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 고객사의 요구와 현장의 여건을 맞추는 일에는 요청의 조정과 함께 기업의 인력·시간·지원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납기·물량·투자비 회수와 노동조건의 연결

납기 문제를 다룰 때에는 약속한 출하일만 확인하기보다 그 일정을 정하고 변경한 과정을 살펴야 한다. 면접 참여자는 통상적인 주문과 달리 촉박한 납기를 요구받으면 자재 준비부터 작업 진행까지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에서는 고객사가 변경을 요청한 시점, 당시의 자재 확보와 생산 준비 상태, 추가로 필요한 작업시간을 함께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 생산부서가 납기를 맞출 수 있다고 답했더라도, 그 계획이 기존 노동자의 근무시간 연장이나 작업속도 증가를 전제로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필요한 인력과 준비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고객사와 납품 일정이나 물량 배분을 다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납기 준수의 책임을 현장에 전달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가 실행 가능한 조건을 협의했는지부터 점검하자는 취지다.

물량 변동에서는 생산량과 함께 근무계획 및 소득의 예측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는 물량 최소로 예정한 특근이 사라져 예상 수입이 달라진 경험이 나온다. 가동이 적은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받은 사례와 공정마다 추가근로 기회가 달랐다는 설명도 있다. 따라서 주문 감소에 대한 대응을 검토할 때에는 어느 기간에 어떤 공정의 일이 줄었는지, 회사가 근무계획을 언제 바꾸었는지, 노동자의 수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연결해 확인해야 한다. 보고서도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부담 완화와 수당 감소를 구분한다. 소득을 유지

하기 위해 잔업을 계속하는 방식만을 대안으로 삼기보다, 근무시간 조정과 소득 보호를 함께 논의하는 편이 적절하다. 주문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생산 확대를 곧바로 야간작업이나 교대제 확대와 연결하기 전에 노동자의 생활에 미칠 영향과 다른 운영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투자비 회수는 설비를 마련할 자금을 확보하는 문제와 구분하여 다를 필요가 있다. 면접에서는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생산라인을 준비했지만 이후 주문 구성이 달라져 일부 설비의 가동이 줄었다는 설명이 있었다. 투자비를 제품 대금에 나누어 반영하는 동안 납품가격을 조정하면 비용을 충분히 회수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러한 거래를 검토할 때에는 투자 당시 예상한 물량과 이후 실제 발주량, 제품 대금에 포함된 회수 금액과 남은 비용을 대조할 것을 제안한다. 고객사와 협의한 물량인지 회사가 자체적으로 예상한 물량인지도 구분해야 한다. 그 차이를 확인해야 주문 변경과 가격 조정에 관해 어느 부분을 다시 협의할지 판단할 수 있다. 거래를 시작할 때부터 회수기간과 산정 근거를 정리하고, 예상과 다른 주문이 이어질 경우 비용 처리방식을 검토할 여지를 마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 간 거래에서 생긴 부담을 노동조건으로 조정하려 할 때에는 회사가 제시한 이유와 검토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5장의 임금·복지 교섭 사례에서 회사는 투자비 증가와 매출 감소를 임금인상의 제약으로 설명했고, 노동조합은 경영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노동자에게만 부담을 넘기는 방식에 반대했다. 면접 당시 교섭은 진행 중이었으며 최종합의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사례에 비추어 보면 경영 부담을 논의할 때 투자비의 발생·회수 내역과 고객사와의 조정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금과 복지를 줄이는 방안을 먼저 정한 뒤 그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거래가격·정산방식·생산일정에서 검토할 대안과 노동조건에 미칠 영향을 비교해야 한다. 공급망 운영의 조정안을 평가할 때에도 납품 유지와 비용 회수만 확인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소득과 근무계획, 작업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넷째. 노동자 관점을 반영한 정보공유와 대응과제의 실행

보고서가 노동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공유와 지원의 실효성을 평가하려는 방향은 실무적으로도 타당하다. 면접에서는 교육 기회가 있어도 담당 업무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근무시간 밖의 교육을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설명이 나왔다. 이는 지원을 제공하는 쪽의 계획과 실제 이용하는 사람의 여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동자의 관점에서 질문하면 교육과정을 마련했는지에 더해 참여시간과 업무조정을 확보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노동자의 요구를 경영상 고려사항에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인지, 그 과정의 부담을 누구에게 맡기는지 판단할 근거를 제공한다.

정보공유는 회사의 대응계획과 노동자의 업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는 작업기준이나 부서 운영의 변화는 알지만 거래·투자계획의 세부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경험과, 회사가 결정을 내린 뒤 노조에 전달한다는 경험이 함께 나온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회사가 고객사의 요구를 검토할 때 적용 공정, 달라질 작업, 예상 인력과 근무형태를 함께 정리할 것을 제안한다. 구매·생산·물류·인사 담당부서는 각각 확인한 내용을 연결하고, 노조는 공정별 질문과 우려를 모아 논의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확정된 사항과 검토 중인 사항을 나누어 설명하고, 노동자가 대안을 제시할 여지가 있을 때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 전문용어나 외국어 문서를 전달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실제 작업의 변화를 설명하며, 교대근무자도 질문할 기회를 마련하는 편이 적절하다.

대응과제의 우선순위 역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보고서는 노동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하고, 기존 체계에서 시작할 과제와 별도의 자원이 필요한 과제를 나누는 방향을 제시한다. 실무에서는 안전상 우려나 임박한 근무형태 변경처럼 먼저 검토할 사안과 교육·설비 개선처럼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안을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서류 정비가 쉽다는 이유로 현장의 작업부담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시간이 필요한 개선과제에는 완료 시점까지 적용할 보호조치도 포함하고, 회사가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할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노조의 의견은 이러한 순서를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이자, 회사의 판단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근거가 된다.

실행 주체는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에 맞추어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보고서도 단위 노조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거래 상대방과 상급단체, 공적 기관의 역할에 연결한다. 구체화하면 원청·고객기업은 자신이 제시한 요구와 준비기간, 비용분담 조건을 검토하고, 협력업체 경영진은 담당인력과 작업일정, 교육·설비 예산을 실행계획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단위노조는 노동조건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현장의 요구를 협의·교섭 의제로 구성하며, 금속노련과 한국노총은 전문정보·상담과 사업장 간 경험 공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다. 외부 컨설팅과 공적 지원은 부족한 전문성과 자원을 보완하되, 기업의 실행 책임이나 노조의 독립적인 판단을 대신하지 않아야 한다.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이유로 자료 작성과 관리업무까지 노조에 넘기는 방식은 이 연구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협의를 지원한 후에는 노동자가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연결해야 한다. 보고서는 정례회의와 실무협의 경험을 확인했지만, 개별 제안이 어떤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파악하지는 못했다. 운영방안으로는 안전별 담당부서, 회신 시점, 필요한 자원과 후속 조치를 간단히 기록하고, 설명한 사항과 합의한 사항, 의견 차이가 남은 사항을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회사가 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하면 해당 공정의 노동자와 노조가 작업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근무·교육·작업 기록을 활용하면서 참여하지 못한 노동자나 부담이 늘어난 공정도 살펴보는 방식이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다음 협의와 지원계획에 남겨 두어, 회의 개최나 상담 종료를 개선 완료로 처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운영에서 노동자 보호는 생산성과 비용절감의 부수적인 효과로만 다룰 대상이 아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고용·소득·안전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고, 변경 계획을 검토하며, 제기한 문제의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가 지원의 성과를 노동자의 실제 이용과 업무 활용 여건까지 포함하여 살피도록 제안한 점은 이와 같은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실무적으로도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원과 현장 사이에서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찾고, 다음에 투입할 자원과 조정할 업무를 정할 수 있다. 노동자 관점의 접근은 공급망 대응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의 여건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시 운영계획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토론문 3

임선국

(LG Display 노동조합 대의원)

토론문 4

백 국 현

(서진산업 사무국장)

토론문 4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백국현(서진산업 노동조합 사무국장)

SECO 서진산업

목차

회사 개요 01

사업 영역 02

매출 현황 03

생산프로세스 04

1. 회사 개요

SECO 서진산업

산업	제조업
직원 수	697명
설립일	1966년 11월
매출액	7,423억원 (2025년)
기업구분	중견기업
대표자	최재홍
주요사업	차체, 샤시, 데크, 모듈
주소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96 (본사)



1. 회사 개요 (회사 연혁)

SECO 서진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6 11. 서울강업사 창립 1972 06. 서진산업(株)로 법인전환 (군포로 이전) 1990 05. 화성공장 준공 1993 09. 시화공장 준공 2003 11. 광주공장 준공 2013 11. OHASA18001 인증 취득 2013 12. 현대모비스 우수 협력사 수상 2014 12. 품질5스타 인증 2015 05. 현대모비스 프레임, 차륜, 데크 사업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 08. 경주공장 준공 2017 12. 2017 노사문화 대상(국무총리상) 수상 2018 01. 현대기아차 올해의 협력사(품질부문) 수상 2020 03. 모범 납세자상 수상 2022 05. ISO45001 인증 취득 2025 01.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2025 09. ISO37001/ISO37301 인증 취득 2025 10. '2025 K-ESG 경영대상' 종합 ESG대상 수상 2026 08. 전주공장 준공
--	--

1. 회사 개요

SECO 서진산업

2025년 12월 31일 기준

• 매출액 : 7,423억
• 인원 : 697명

<p>시흥 군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 1,152억 • 인원 : 238명 	<p>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 1,833억 • 인원 : 163명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 1,680억 • 인원 : 119명 	<p>전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 619억 • 인원 : 4명
<p>경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 2,139억 • 인원 : 1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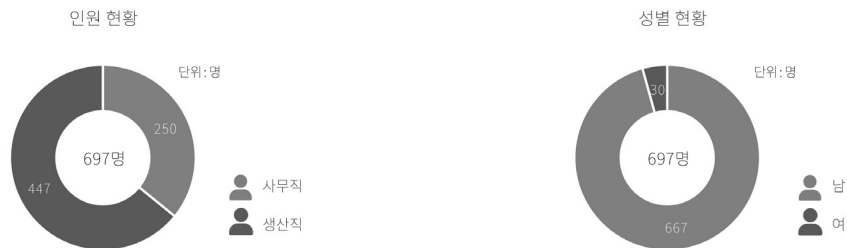
주요 고객사

HYUNDAI
WIA

MOBIS

1. 회사 개요

SECO 서진산업



주요설비현황

구분	시화공장	화성공장	광주공장	전주공장	경주공장
프레스	-	800T(A), 800T(M), 1200T, 2000T	800T(A) 1500T(A)	-	1500T(A), 1000T(A), 600T
도장라인	전착도장	-	전착도장	전착도장	전착도장 (2라인) (전착/전착+중상도)

2. 사업 영역

SECO 서진산업

차체, 샤시, 모듈, 데크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 기업

차체 (Body)	샤시 (Chassis)	데크 (Deck)	모듈 (Modu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의 승객 공간과 외형을 구성하는 기본 구조 안전성·강성·경량화 등 차체 성능을 확보 Cowl, Dash, Door, Hood, Quarter Panel 등 주요 부품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 하부에서 차체와 주요 부품을 지지하고 주행에 필요한 구조 구성 주행 안정성·하중 지지·승차감을 확보 Cross-member, L/Arm, Sub-Frame, Chassis-Frame, CTBA 등 주요 부품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용차 적재 공간을 구성하는 구조 적재·운송 및 차량 활용 성능을 확보 소형(1톤), 중형, 대형 데크 및 덤프 데크 등 다양한 사양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개의 부품을 하나의 기능 단위로 조립하여 완성된 형태로 공급 조립 효율성·생산성 향상 엔진모듈, Wheel&Tire 모듈, 플랫폼 모듈 등 생산

2. 사업 영역

SECO 서진산업

차체 부품 (Body Parts)

차량의 기본 골격을 구성하여 승객의 안전을 지키고, 차체 강성·충돌 안전성·소음 차단·외관 품질을 확보하는 핵심 구조부품입니다.



2. 사업 영역

SECO 서진산업

샤시 부품 (Chassis Parts)

차량의 하중을 지지하고 바퀴의 움직임을 제어하여 주행 안정성, 조종성, 승차감을 구현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2. 사업 영역

SECO 서진산업

1톤 데크 (초장축/표준축 등)



- 소형 트럭(1톤)용 데크로 적재함 바닥, 측면, 전면 구조를 포함한 기본 모델입니다.
- 다양한 적재물 운송에 적합하며, 경량화와 내구성을 고려한 구조로 제작됩니다.

중형 데크 (1.2톤~3.5톤)



- 중형 트럭용 데크로 1톤보다 긴 적재함을 적용하여 더 많은 적재공간을 제공합니다.
- 물류, 건설자재 등 다양한 화물 운송에 사용되며, 강도와 내구성을 강화한 구조입니다.

대형 데크 (5톤 이상)



- 대형 트럭용 데크로 대용량 화물 운송에 적합한 정축 구조입니다.
- 높은 적재중량과 반복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고강도 소재와 보강 구조를 적용합니다.



덤프 데크



- 적재함 후방을 유압으로 상승시켜 적재물을 쉽게 배출할 수 있는 덤프형 데크입니다.
- 건설자재, 골재, 토사 등 대량의 적재물 운송에 적합하며, 강도와 내구성을 확보한 구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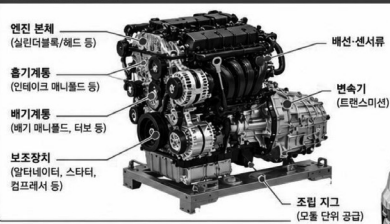
2. 사업 영역

SECO 서진산업

엔진모듈 (Engine Module)

엔진 관련 주요 부품을 하나의 모듈로 사전에 조립하여 완성차 조립라인에 공급하는 제품입니다.

주요 구성 부품 (예시)



역할 및 특징

- 1 엔진과 변속기, 보조장치 등 주요 부품을 모듈화하여 완성차 조립라인에 공급
- 2 고품질 사전 조립을 통한 조립 공정 단순화 및 생산성 향상
- 3 진동-소음-내구성 등 신뢰성 확보
- 4 JIT/JIS 방식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완성차 생산 효율성 극대화

타이어/휠 모듈 (Wheel & Tire Module)

휠과 타이어를 조립하고 밸런싱까지 완료하여 완성차 조립라인에 공급하는 제품입니다.

주요 구성 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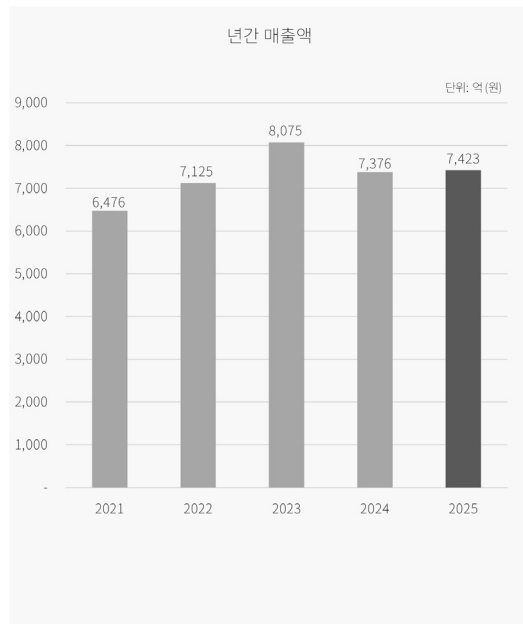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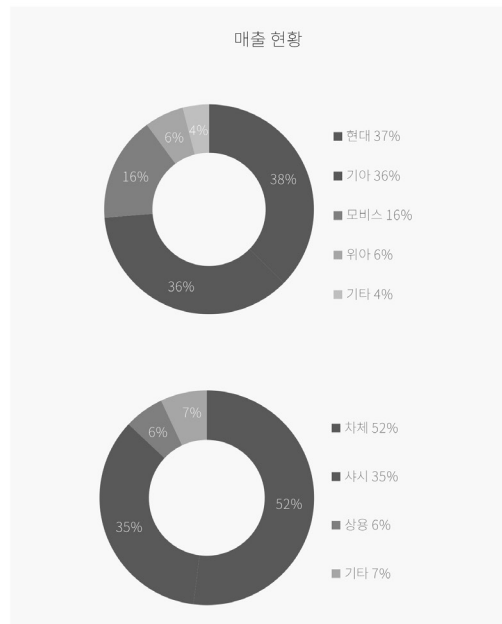


역할 및 특징

- 1 휠과 타이어를 조립하고 밸런싱까지 완료한 완성 상태로 공급
- 2 구동력-제동력 전달 및 노면 접지력을 확보하여 주행 안정성 향상
- 3 TPMS(공기압 센서) 등 부착 가능
- 4 조립 공정 단순화 및 품질 균일성 확보
- 5 JIT/JIS 방식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생산 효율성 극대화

3. 매출 현황

SECO 서진산업



4. 생산프로세스

SECO 서진산업



SECO 서진산업

감사합니다